

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부위원장	성명 백혜슬
	현직위	위 원	성명 김경원
확 인 자	도시농업과장		성명 송임봉
작 성 자	도시농업과 농업6급		성명 주성호

2018년 제3회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회의록

2018. 10. 19.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8년 제3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 회의록

< 회 의 개 요 >

- 일 시 : 2018. 10. 19.(금) 10:00~12:00
- 장 소 : 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자 : 10명
 - 위원(7) : 조인동(공동위원장), 백혜숙(부위원장), ①김경원·②고창록·③구은경·④안철환·⑤김진덕(위원)
 - ※ 불참(8) : 이용범 공동위원장, 김영한·신동헌·구은경·이기택·옥진주·이종석·조강희(위원)
 - 서울시(5) : 도시농업과 송임봉 과장, 정여원, 이병훈, 김연홍팀장, 주성호 주무관
- 주요안건
 - 박람회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 활성화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 2019년 주요 사업예산안 보고
 - 기타사항

□ 주요 발언 내용

간사: 개회, 참석위원 소개,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 안내

공동위원장: 인사말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궐석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음. 오늘의 안건은 각 소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들은 후 그에 대한 의견을 받고, 2019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00팀장의 보고, 이후 그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음. 먼저 박람회 소위원장인 제가 그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겠음

박람회 소위원장: 제8회 공동개최지로 2018. 7. 19.에 단독 신청한 관악구를 평가점수76.6점으로 선정하였고,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15명으로 2019.9.5. 구성하였음. 따라서 제8회 박람회는 관악구 낙성대공원에서 2019.5.16.~19.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임. 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분과, 홍보분과, 국제컨퍼런스분과

로 나누어 주제작물 선정, 슬로건 확정 등을 하였으며, 10월말에는 슬로건, 주제작물과 기본 콘텐츠를 확정하고, 11월중 세부 콘텐츠와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대행사 모집공고와 내년 1월 중 선정을 하고, 컨퍼런스 초청대상자 섭외도 12월까지는 완료함으로 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

부위원장: 이어서 000 활성화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동안 활성화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활성화 소위원회위원장: 활성화 소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7월10일, 7월 16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주로 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를 하였으며, 2018. 8.17.에는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서소문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음. 60여명의 시민과 시구 공무원 함께한 이날에는 도시농업 비전과 핵심가치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핵심어로 소통, 복지, 지속가능 등의 단어가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하였으며, 비전 제시 시간에는 도시농업 확장 분야, 공동체 분야, 환경생태분야 등 고른 관심과 지지를 보였음. 이상 보고를 마침.

부위원장: 000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음. 그럼 두 소위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함. 먼저 박람회 소위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할 위원은 말씀바람.

위원1: 대표작물인 파는 동양권에만 이용하는 작물로 국제컨퍼런스 등 국제적 행사도 있어 달리 고려함이 좋을 것 같음.

박람회 소위원회위원장: 식용으로 쓰이지 않지만 동양 허브차원으로 공용식물로 손색이 없는 괜찮은 것 같단 생각임으로 향후 대행사가 선정되거나 관악구에서 실행단계에서 선택을 하도록 그 점음 열어뒀으면 함.

위원2: 추상적인 주제, 개막식이나 폐막식 등 형식적이고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도시농업에 발전적이고 진화적인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함. 일자리, 도시재생 등의 융합을 통한 실효를 거두도록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생각함.

부위원장: 내년 박람회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란 주문으로 생각되어짐. 그리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음.

위원3: 건강이란 주제에 한정 짓지 말고 넓혀나가야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가 잘 들어나도록 미세먼지(환경), 치유 등 확장성을 가지면 좋겠음. 컨퍼런스도 주제마찬가지임.

부위원장: 총체적인 도시농업이 녹아나도록 노력하겠음.

위원4: 체험행사, 학술행사에 녹아나도록 도시농업 역사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음.

부위원장: 박람회 역사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 주제관에 정책내용에 반영할 예정임

위원2: 서울시에서 공급된 상자텃밭의 실물적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던가 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음.

부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함

위원5: 다음 개최지를 폐막식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팀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지를 피력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갖는 것도 좋을 듯하고, 또 역사성을 담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박람회를 준비하면 어떨지요?

부위원장: 활성화 소위에 중요한 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음. 2016년에 주제만 정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마스터플랜에 담는 것이 좋을 듯함.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은 활성화 소위원회 보고서항과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4: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전과 다르게 나온 의견이 있었는지?

부위원장: 000 활성화 소위 위원장님께서 보충하여 설명해 바람.

활성화 소위위원장: 기존 논의에 포함되어 있음. 우리끼리가 아닌 서울시민이 참여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했던 것임. 평가회를 통해 꾸준히 도출되었던 학교 텃밭 제도화, 공공텃밭 등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의 공개를 통한 단체 활용성 방안, 중간지원기구의 설치 논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가장 핵심적 과제로 도출된 바 있음. 이 모든 것은 결국 한정된 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있다고 봄.

위원2: 텃밭 확보 때 공공성 관점이 공동체적 측면 아니면 전체적인 발전의 방향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활성화 소위위원장: 도시농업의 가치는 공익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임. 자원의 배분의 정책대상자는 특정적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분양된 상자텃밭, 분양텃밭 등이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함. 또한 그동안 물량적인 확장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 포털을 통한 정보의 공유, 개방적 텃밭 운영지침, 즉 매뉴얼화=제도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생각됨.

부위원장: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 등 보다 심도 있는 부분은 다음 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음 좋겠음.

위원1: 매뉴얼에 관한 논의가 많았음. 학교 텃밭 등 도시농업이 일부가 기술센터와 자치구로 분리된 것 등 이원화 되어 있는 것도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음.

위원5: 지원센터가 단체가 아닌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함. 농업기술센터 무료교육은 민간교육기관을 감안 검토되어야 함. 자치구 공원과로 도시농업이 편입되는 것은 불행임. 그 쪽으로 가면 거버넌스가 무너짐. 농업직 숫자가 너무 적는데 활성화 되는 만큼 농업직 공무원 늘려야 함.

위원2: 참여인구가 170만이 넘는데 경작공간이 너무 적음. 텃밭이 없는 자치구의 일반 시민들이 텃밭이 있는 자치구나 인근 지자체 경작공간을 확보 공급 필요.

위원5: 강동, 서초는 인근 지자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않될지?

위원1: 서울시 공간에서도 실내원에 등 활동거리가 많다고 생각함. 먹거리 말고, 화훼, 새싹채소 등 확산할 아이템이 많음.

부위원장: 활성화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2019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00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람.

00팀장: 2019년 도시농업예산안은 총 116억이며 주요 신규산업으로 텃밭플렉스 조성 사업 10억, 서울도시농부 등록제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포털 구축, 교육 홍보 등에 4억 원, 도시농업인의 날 및 미세먼지 저감의 날 행사 예산으로 28백만 원을 편성 요구함. 11월~12월중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통과되어야 하지만 집행부안으로 확정된 상태임. 서울농부 등록제는 등록농부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위원1: 텃밭플렉스가 뭔지요?

00팀장: 종합 체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을 4개 권역으로 추진할 예정임.

간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됨. 서울도시농업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도시농업 포털을 통해 자료가 계속 축적되면 될 것임. 국제컨퍼런스에 대해서도 초청해서 발표한 나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상호 교류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음. 농업직 증원은 자치구 인사권한은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있어 어려움. 농업기술센터의 무료교육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음. 학교 텃밭 일원화는 현재 논의 중에 있음. 자치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포상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임. 중간기구로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우리 도시농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앞으로도 워크숍, 토론회,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 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부위원장: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음. 다른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음. 3기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아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한 층 서울 도시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떠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애정을 현장에서 꽃피워 서울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힘을 합쳐주시기 바람.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